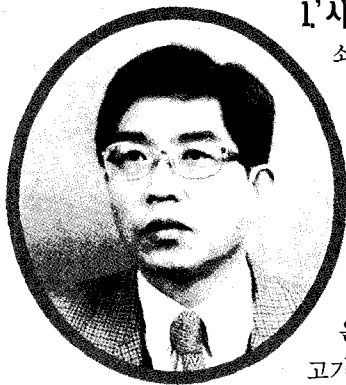


쇠고기 '사태'

포천축협 상무·농축산문화연구원사/전 성수



1. '사태'의 우리말의 뜻

쇠고기 부위중 국거리용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위가 '사태'이다. 사태는 소의 앞다리와 뒷다리의 오금에 붙은 넓적다리 살덩이 고기인데 힘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질기지만 고기의 결이 곱고 풍미가 좋으며 오래 익히면 연해져서 먹기가 좋아진다.

'사태' 고기라는 말은 산사태·눈사태의 '사태(沙汰)'나 일의 형편을 뜻하는 '사태(事態)'가 아니라, 다리 가랑이의 '살'에서 나온 순수한 우리말이다. '살'은 '사이'와 '틈'이 합쳐서 생긴 말로서(사이+틈=살), 두 다리 '사이'의 구석진 '틈'처럼 좁게 갈라진 '틈새'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좁은 골목길이 '고살길'이요, 산야(山野)의 좁은 골짜기가 '고살'이며, 씨름 선수들이 넓적다리에 걸어서 손잡이로 쓰는 무명끈이 '살바'이다. 이 밖에 바지 따위의 살에 좁다란 형질이 '살폭'이며, 옛날에는 살에 대는 기저귀를 '살갓'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살고살' 누비며 '살살이' 뒤희는 것은 '구석구석·모조리' 찾아 다니며 '빈틈없이·속속들이·날날이' 들추어내는 것을 뜻한다.

'살'은 후에 '사타귀'와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 냈

다. 아랫배와 두 허벅다리가 이어져 맞닿은 곳의 틈새를 가리키는 '사타귀'는 「살+아귀」로 이루어진 말이며, '사타구니'라고도 한다.

한편 '살'은 「사틈-사춤」으로 변하여 벽이나 담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한다. 우리말의 '틈'이 '춤'으로 바뀌어진 사례로는 「허리틈-허리춤」을 들 수 있다.

'사투리'라는 말도 '살'에서 비롯되었다. 사투리는 나라 안에 널리 쓰여져서 표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방에서만 좁게 통용되는 방언(方言), 즉 '살'과 같은 '차투리'말이라는 뜻이다.

'사태'는 원래 '살의' 고기라고 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사태' 고기가 되어 나온 말이므로, 소 다리의 '살'에 붙은 고기를 '사태'라고 하는 것이다.

2. '몽치'사태와 '아롱'사태

쇠고기의 '사태'를 소분할하면 '사태·뒷사태·몽치사태·아롱사태'의 네 부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앞사태'는 앞쪽 허벅지에 붙은 살코기인데, '저대(살)'이라고도 한다.

'뒷사태'는 뒷쪽 허벅지에 붙은 살이다. 뒷사태에는 근육에서 가장 큰 비복근(장딴지근)으로 이루어진 '몽치사태'와 몽치사태 안쪽의 단일 근육(천치근육)으로서 아킬레스건에 이어진 근육을 따라 몽치사태의 밑부분에서 윗부분까지를 갈라서 떼어내는 '아롱사태'가 있다.

'몽치'사태는 고기 모양이 돈몽치·숨몽치처럼 큰 덩어리로 한데 '몽쳐' 있다.

그리고 몽치사태의 한가운데에 알을 밴듯 붙어 있는 '아롱' 사태는 보기에 '아름'답다 '아롱아롱' 눈에 '아름' 거리는 한 '아름'의 고깃덩이이다. 뒷사태에서 몽치사태와 아롱사태를 떼어낸 나머지 부위와 앞사태를 일반적으로 '사태살'이라고 한다.

'사태'의 뿌리말인 '살'은 속담에도 등장하고 있다. 「또아리로 살 가린다」고 하면 가린다고 가렸으나 가장 요긴하고 은밀한 부분을 못 가렸으니 일을 하나만 나한 꼴을 뜻하며, 「살 짬에 똥 썩 격」이라 하면 살이 서로 맞붙은 틈에 똥똥은 씻어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곤란한 일이 얽힌데 뉘뉘듯 생겨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나 짐승의 '새끼'도 '살'과 관련된 말이다. 옛 기록을 보면 새끼를 '삿기'라고 했다.

象과 쇼와 羊과 廐馬 | 삿기 나 혀며 (『월인석보』)

'삿기'의 '삿'은 '사이' [間]의 옛말 '스'의 준말인데, '새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이다. 그런데 새끼가 태어나는 곳이 바로 어머니가랑이 사이의 은밀한 '살'이다.

'사이'의 준말인 '새' [間·新]가 널리 쓰여지고, '삿기'의 '기'는 경음화(硬音化) 현상으로 '끼'가 되어 '삿기'는 점차 '새끼'라는 말로 바뀐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더러 흔히 다리(橋)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리는데, 이 말은 물론 어머니의 다리(脚) 밑(陰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새끼'가 어머니 가랑이 사이의 '살'에서 나온 것'이란 뜻에서 온 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다리'도 두 다리 '사이사이'에 걸친 발판을 딛고 기로 오를수록 두 다리 '사이의 틈'이 점점 좁혀져 있는 '살'으로 다가서는 다리라 하여 '살(삿)다리 → 사닥다리 → 사다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또 충남 예산군 '삼교' 마을은 골짜기 사이에 있다는 '삿들'이 삿달 → 삿다리 → 삼다리(插橋)로 변화

를 거듭하여 나온 땅이름이고, 골짜기의 사이에 있는 '삿재'는 '삼재'를 거쳐 '삼현'이라는 고개 이름을 만들어 냈다.

3. '살살이' 우려먹는 '살의 고기'

'살'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말이 이렇게 사태(沙汰)나듯 많은 데에는 우리몸에서 '살'이 있는 은밀한 구석(?)에 대한 강한 호기심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쇠고기 '사태'는 이것을 궁거리로 써서 살과 살이 서로 '차지'러지게 불꽃 튀기며 육탕질(!)하듯 푹 끓여서 '살살이' 우려낸 뜨거운 육탕(肉湯)의 진액맛과, 고깃덩이가 잘 삶아지도록 '고살고살' '쭈셔'대면서 익힌 사태찜을 '썩'어 먹는 졸깃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살'이란 글자는 더구나 그 모양새가 '사이'를 뜻하는 '사'가 '틈'을 뜻하는 '티'를 올라타고 결합하여 한몸을 이루고 있다. 방중술(房中術)로 치면 기마(騎馬)자세와 다를 바없다.

이렇게 '사이'와 '틈'이라는 두 낱말이 암수처럼 서로 얼러붙어서 찜고 까불다가 까부라지고 까무러쳐서 '새끼'치듯 까발리는 사태(事態)로 나온 우리말이 '살'이며, '살의 고기' → 살에 고기 → 사태고기'인 것이다. (㉞)

〈필자연락처 : 0357-533-4230〉



♥ 낙농가는 우유사랑! 소비자는 우유사랑! ♥